

## 국내경기는 4개월 만에 악화

~ 노토반도 지진 및 난동(暖冬), 자동차 부정문제 등으로 개선경향이 스톱 ~

(조사대상 2만 7,308사, 유효회답 1만 1,431사, 회답율 41.9%,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감소한 44.2로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 외에 난동(暖冬)으로 인한 계절상품 부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정문제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개선경향이 스톱하였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2024년 문제 등 구조적인 악재를 떠안고있는 가운데 계속된 임금인상이 초점이 되어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난동(暖冬)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정문제 등이 폭넓은 업종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쳐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 1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호쿠리쿠』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시카와(石川)」는 전국에서 가장 침체하였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4개월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 노토반도 지진에 대하여 호쿠리쿠 지방을 중심으로 기업활동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기업은 소비 자제 분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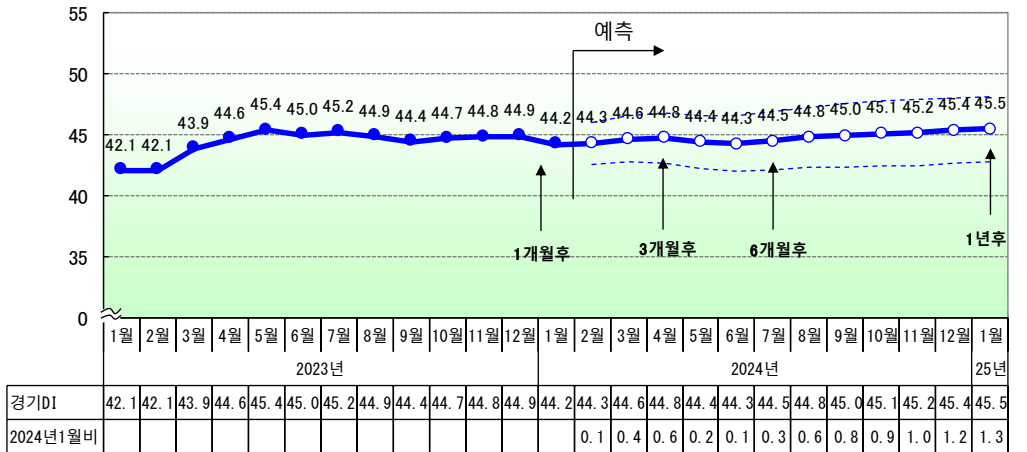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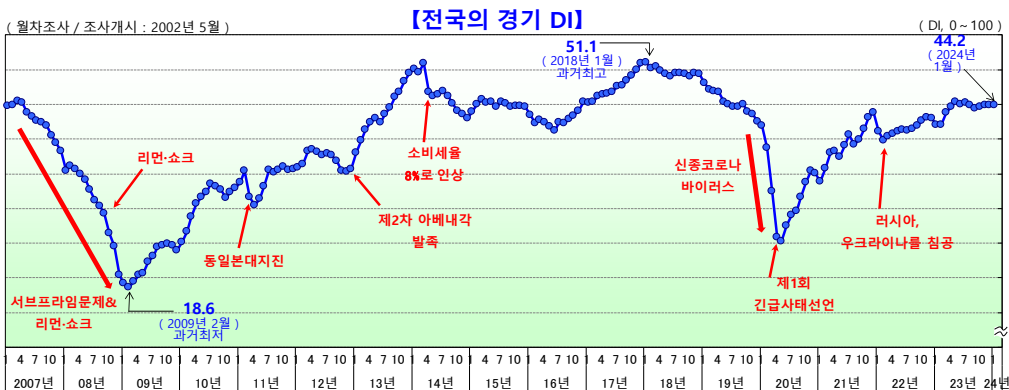
### < 2024년 1월의 동향 : 개선경향 스톱 >

2024년 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감소한 42.2로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 외에 난동(暖冬)으로 인한 계절상품 부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정문제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개선경향이 스톱하였다.

1월은 2024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하여 호쿠리쿠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 등의 조업정지 및 소비 마인드 저하와 같은 악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난동으로 인한 겨울상품의 매출부진 및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정문제 등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료칸 및 호텔 등에서는 오프시즌을 맞이하여 수요 침체가 보였다. 한편 도시개발 및 반도체관련 설비 수요 등은 경기를 지탱하였고 닛케이평균주가 등 안정된 금융시장도 호재였다.

### < 향후의 전망 : 보합경향으로 추이 >

향후는 인바운드 수요 외에 GX 등의 설비투자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임금인상으로 인한 개인소비의 행방이 열쇠가 될 것이다. 가격 전가의 진전 등으로 인한 기업 업적 개선, 경제대책 실시, 생성형 AI발전 등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노토반도 지진의 복구·부흥 수요는 상승세 요인이 될 것이다. 한편 인력부족 및 전문가 부족, 2024년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물가 및 금리 동향 등의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자동차 부정문제 및 해외경제 동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2024년 문제 등 구조적인 악재를 떠안고있는 가운데 계속된 임금인상이 초점이 되어 보합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별 :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악화, 난동(暖冬)및 자동차 부정문제 등이 악재로**

• 난동(暖冬)및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정문제 등이 폭넓은 업종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쳐 10개 업계 중 7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게다가 관광 비수기를 맞아 료칸 및 호텔 등을 중심으로 수요 침체가 나타났다. 게다가 노토반도 지진으로 인한 불투명한 행방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 『제조』(40.4) …전월 대비 1.1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다이하즈공업의 부정문제 영향으로 「대상차종의 부품생산이 정지상태」(자동차부품·부속품제조)와 같은 목소리가 있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동 3.1포인트 감소)는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난동의 영향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된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동 2.2포인트 감소)는 4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또한 해외경제 침체 및 전선과 관계된 물품의 입수가 곤란하게 되었다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기계제조」(동 1.3포인트 감소)는 2년 11개월 만에 30대로 저하되었다. 한편 축전지 수요가 견조라고 하는 「전기기계제조」(동 1.1포인트 증가)는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 『서비스』(50.2) …동 0.7포인트 감소.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오프시즌을 맞이하여 수요 침체가 보이는 「료칸·호텔」(동 5.6포인트 감소)은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게다가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으로 「예약 취소가 다수 있고, 또한 단수로 인해서 휴관되었다」(료칸)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한 연말부터의 수요가 일단락된 「음식점」(동 3.7포인트 감소)도 하락하였다. 민간 설비투자 동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리스·임대」(동 1.3포인트 감소)및 각 제조업체의 생산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인재파견·소개」(동 1.2포인트 감소)는 함께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한편 「의료·복지·보건위생」(동 1.2포인트 증가)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 『소매』(40.8) …동 0.7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종합슈퍼 등을 포함하는 「각종상품소매」(동 1.4포인트 감소)는 5개월 연속 악화되었고, 난동의 영향으로 겨울상품의 매출 침체가 영향을 미쳤다. 난동과 함께 노토반도 지진 등으로 인하여 소비 마인드의 저하를 느낀다고 하는 목소리가 다수 들린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동 3.7포인트 감소)는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또한 「의약품·일용잡화상품소매」(동 0.3포인트 감소)는 4개월 만에 침체되었다. 또한 「중고차 시세는 새해가 되고 약간 상승기조」(중고자동차소매)라는 목소리가 있는 「자동차·동부품소매」(동 2.7포인트 증가)는 어렵지 만서도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 『부동산』(48.1) …동 0.6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인파가 회복, 음식점포 등의 활기가 회복하고 있다」(임대사무소)등 대도시권에서의 재개발 사업이 호재가 되고 있다. 또한 「물가가 급등하고는 있으나 신축 분양 맨션 공급이 적고, 저금리도 뒷받침되어 팔림세는 비교적 호조」(부동산대리·중개)와 같은 목소리도 들린다. 한편 물건 가격의 급등이 지속되어 앞으로의 구입 의욕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전월 대비	
총·임·수산		37.4	38.9	41.6	42.2	44.8	46.7	42.5	43.0	42.1	43.0	40.1	40.5	40.3	▲ 0.2	
금융		44.8	43.3	44.0	45.0	47.8	48.1	47.4	48.8	46.8	47.3	48.0	47.0	47.7	0.7	
건설		44.1	43.7	45.5	45.6	46.9	46.8	47.4	47.1	47.5	47.8	47.2	47.7	47.7	0.6	
부동산		46.1	46.3	47.5	49.6	50.7	50.3	48.8	49.6	48.5	48.7	47.9	47.5	48.1	0.5	
제조	음식료품·사료제조	38.1	37.0	41.1	42.0	43.7	43.6	43.1	44.5	42.6	43.4	44.0	44.6	43.6	▲ 1.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7.7	39.0	38.6	41.0	42.1	42.0	43.6	42.6	43.0	41.5	40.8	40.1	37.9	▲ 2.2	
	인재·가구, 요업·토석제품제조	38.0	37.6	37.0	39.7	39.0	38.4	37.9	38.2	39.0	40.3	41.5	40.3	39.9	▲ 0.4	
	펄프·종이, 종이가공품제조	39.8	36.6	38.6	37.6	38.6	35.8	36.1	36.1	36.9	37.7	37.2	38.5	37.3	▲ 1.2	
	출판·인쇄	31.7	31.6	34.3	33.9	35.4	33.9	33.4	33.9	32.3	32.5	33.1	34.2	32.4	▲ 1.8	
	화학품제조	40.3	39.2	40.1	41.0	40.6	41.6	41.8	41.2	41.2	41.4	42.7	42.2	42.6	0.4	
	철강·비철·광업	41.7	41.0	41.9	41.1	40.9	40.4	40.7	39.9	39.8	41.5	41.9	42.0	39.7	▲ 2.3	
	기계제조	43.3	43.7	43.4	43.8	42.9	41.9	42.9	42.8	41.2	40.7	40.5	40.6	39.3	▲ 1.3	
	전기기계제조	43.3	43.2	42.8	43.2	43.1	43.9	42.9	42.8	42.4	42.3	43.0	42.5	43.6	1.1	
	수송용기계·기구제조	38.7	39.6	41.2	41.5	43.0	44.6	46.2	46.2	48.3	46.9	47.2	44.7	41.6	▲ 3.1	
	철물기계, 화력기계·기구제조	46.5	49.0	46.8	45.6	46.2	46.8	45.4	42.9	44.2	42.9	43.4	44.3	43.9	▲ 0.4	
	기타제조	39.1	36.1	40.8	41.9	42.7	42.3	43.8	40.3	40.5	39.4	40.7	39.9	41.9	2.0	
	전 체	40.4	40.0	41.0	41.4	41.5	41.3	41.5	41.2	40.8	41.1	41.6	41.5	40.4	▲ 1.1	
도매	음식료품도매	37.5	38.3	42.1	44.3	45.2	44.9	46.4	47.1	45.8	43.3	44.5	45.7	43.1	▲ 2.6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4.7	35.9	38.0	41.9	43.1	39.4	39.5	38.0	38.1	36.1	36.0	36.3	36.9	0.6	
	인재·가구, 요업·토석제품도매	38.3	37.2	38.0	39.1	38.4	37.3	38.4	38.0	38.1	38.0	38.3	38.9	38.0	▲ 0.9	
	종이·문구·서적도매	34.8	35.6	37.3	37.9	40.3	36.5	38.2	38.6	38.5	38.4	40.1	40.7	39.6	▲ 1.1	
	화학품도매	42.8	41.7	43.5	44.9	46.8	45.3	45.2	45.1	44.5	44.9	45.1	45.4	44.4	▲ 1.0	
	제철차원도매	43.3	43.2	41.7	43.5	40.4	38.9	42.2	40.9	43.9	45.2	42.4	43.8	42.9	▲ 0.9	
	철강·비철·광업도매	38.5	37.1	37.8	37.9	38.1	37.5	37.9	34.7	36.7	37.0	38.1	38.2	37.3	▲ 0.9	
	기계·기구도매	43.0	43.3	45.2	45.2	46.0	45.4	45.3	44.7	43.8	43.9	44.1	44.7	43.7	▲ 1.0	
	기타도매	40.0	40.9	42.3	43.9	44.9	43.2	42.6	42.7	41.7	43.1	43.2	42.9	42.0	▲ 0.9	
	전 체	40.1	40.1	41.9	42.9	43.7	42.5	42.9	42.3	41.9	41.7	42.1	42.7	41.6	▲ 1.1	
	소매	음식료품소매	42.3	40.6	42.7	49.1	49.7	46.6	46.2	47.8	46.5	45.5	44.9	46.4	45.5	▲ 0.9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4.2	35.7	39.7	36.6	38.3	40.4	41.4	41.2	36.6	42.7	39.3	40.0	36.3	▲ 3.7
		의약품·일용잡화상품소매	37.2	38.5	42.9	47.8	47.4	45.9	45.3	42.6	42.5	43.8	44.7	46.1	45.8	▲ 0.3
가구류소매		34.2	33.3	39.5	38.1	34.7	33.3	32.5	30.2	36.3	27.2	32.4	32.7	34.0	1.3	
가전·정보기기소매		36.3	37.5	40.2	37.8	40.5	38.6	41.3	40.2	42.7	42.5	44.0	42.7	41.8	▲ 0.9	
자동차·동부품소매		38.2	38.7	40.8	44.0	41.5	40.6	40.9	42.0	41.7	42.4	40.2	39.7	42.4	2.7	
전문상품소매		34.4	35.3	38.6	39.0	39.4	40.1	38.8	38.7	39.1	39.4	38.1	38.3	37.8	▲ 0.5	
전통상품소매		42.5	41.0	43.6	47.8	45.8	44.9	48.1	48.5	45.9	45.3	44.3	44.1	42.7	▲ 1.4	
기타소매		42.3	44.8	41.1	41.7	41.1	45.8	46.2	42.2	47.6	46.2	47.2	51.3	40.3	▲ 11.0	
전 체		37.5	37.7	40.6	42.5	42.4	42.0	41.9	41.8	41.4	41.9	41.2	41.5	40.8	▲ 0.7	
운수·창고		38.9	38.0	41.2	42.1	43.4	42.2	43.5	43.3	42.8	44.1	43.8	44.5	43.5	▲ 1.0	
서비스		음식점	38.5	42.4	49.8	50.8	56.7	53.6	55.6	52.2	51.8	47.4	49.4	54.0	50.3	▲ 3.7
		전기통신	47.6	44.4	52.8	52.8	58.3	53.3	60.4	54.8	57.4	59.5	57.1	54.2	56.1	1.9
	원기·가사·수도·열풍급	32.4	32.1	39.7	38.9	44.0	44.1	44.8	43.5	46.3	44.1	50.0	42.7	41.7	▲ 1.0	
	리스·임대	46.8	47.4	48.1	50.5	49.7	52.1	49.8	49.0	49.2	52.5	52.9	51.6	50.3	▲ 1.3	
	료칸·호텔	48.3	48.0	59.6	62.1	59.8	55.1	56.6	55.5	57.6	59.7	64.3	56.9	51.3	▲ 5.6	
	오락서비스	42.1	44.1	50.9	48.9	50.4	47.6	49.3	48.8	46.2	46.3	44.8	47.9	46.3	▲ 1.6	
	방송	40.7	41.1	42.6	44.7	47.4	43.1	44.7	46.1	45.6	42.6	45.6	43.3	44.1	0.8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42.9	42.6	45.3	45.8	47.3	48.0	48.4	47.4	47.8	46.8	49.0	46.9	47.3	0.4	
	광고관련	40.2	41.4	43.7	46.6	45.0	45.0	44.8	45.2	45.4	45.2	45.6	45.1	46.2	1.1	
	정보서비스	53.2	53.8	55.5	55.8	56.2	56.8	57.0	56.4	55.5	56.0	55.4	56.3	56.1	▲ 0.2	
	인재파견·소개	48.5	47.9	47.3	49.6	50.7	52.0	52.0	50.9	48.9	50.9	52.3	50.0	48.8	▲ 1.2	
	전문서비스	48.5	49.2	50.1	50.9	52.3	51.7	52.2	51.3	51.2	52.0	51.1	50.3	50.5	0.2	
	의료·복지·보건위생	42.9	41.5	42.2	41.8	44.6	44.8	44.2	43.4	42.4	43.6	41.8	43.2	44.4	1.2	
교육서비스	38.4	41.9	44.4	38.4	42.2	41.4	40.7	43.8	46.4	45.6	42.6	44.4	43.7	▲ 0.7		
기타서비스	42.2	44.3	46.5	48.6	47.5	49.2	48.2	47.9	47.2	47.6	47.2	48.1	47.5	▲ 0.6		
전 체	46.6	47.4	50.0	50.8	51.6	51.6	51.7	50.8	50.4	50.8	50.8	50.9	50.2	▲ 0.7		
기타	36.5	37.0	38.2	39.2	41.2	39.8	40.9	40.8	39.2	40.1	38.2	42.8	41.3	▲ 1.5		
격차 (10개 업계별 『기타』 제외)	9.2	9.7	9.4	9.4	10.1	10.3	10.2	9.6	9.6	9.7	10.7	10.4	9.9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 규모별 : 전규모가 4개월 만에 모두 악화, 개인소비 침체가 눈에 띄어

-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 4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서비스』 『소매』 등 개인소비가 침체한 한편 전규모에서 『건설』 『부동산』 이 호전되었다.
- 「대기업」 (47.9) ...전월 대비 0.2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음식점 및 료칸, 종합슈퍼 등이 대폭 악화되어 『서비스』 『소매』 등 6개 업계가 침체하였다. 한편 대여 회의실의 가동이 늘어난 『부동산』 이나 연말까지의 업무 확보가 진행된 『건설』 등 3개 업계에서 개선되었다.
- 「중소기업」 (43.6) ...동 0.7포인트 감소.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다이하츠공업의 문제 등으로 자동차 관련이 크게 침체한 『제조』 가 악화되었다. 또한 연료비의 고공행진 등으로 운수 관련도 하락하였다. 한편 「대기업」 과 같이 『건설』 『부동산』 은 개선되었다.
- 「소규모기업」 (42.6) ...동 0.7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고장나도 새로 사는게 아니라 수리를 희망한다」 와 같이 가전 등에서 구매 보류가 눈에 띄는 『소매』 가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한편 대여 점포의 번성이나 재개발사업이 뒷받침하여 『부동산』 은 5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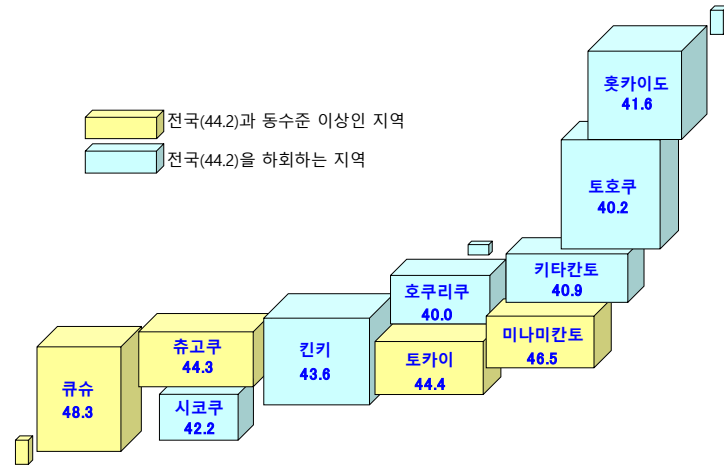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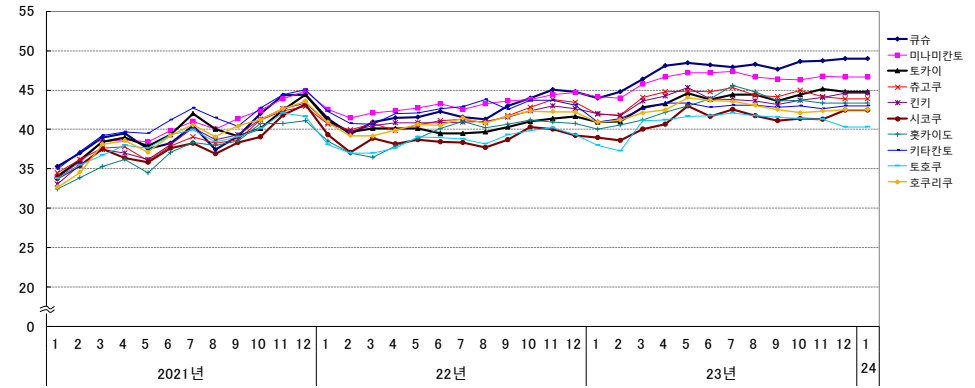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전월 대비
대기업	44.8	44.2	46.1	47.3	48.1	47.7	48.6	48.0	47.8	47.9	48.4	48.1	47.9	▲ 0.2
중소기업	41.6	41.7	43.5	44.2	44.9	44.5	44.6	44.3	43.8	44.1	44.2	44.3	43.6	▲ 0.7
(그중 소규모기업)	40.4	40.9	42.4	42.9	43.9	43.6	43.4	43.5	43.0	43.4	43.1	43.3	42.6	▲ 0.7
격차(대기업 - 중소기업)	3.2	2.5	2.6	3.1	3.2	3.2	4.0	3.7	4.0	3.8	4.2	3.8	4.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 지역별 : 노토반도 지진 영향 등으로 9개 지역에서 악화, 인력부족 등의 문제도

- 『호쿠리쿠』 『홋카이도』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 1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이 『호쿠리쿠』 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시카와(石川)」 는 전국에서 가장 침체하였다. 게다가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하락시켜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는 32개 도도부현이 악화되었다.
- 「호쿠리쿠」 (40.0) ...전월 대비 2.5포인트 감소. 3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이시카와(石川)」 「토야마(富山)」 「니이가타(新潟)」 3개 현(県)이 악화, 「후쿠이(福井)」 는 보합이었다. 「지진의 영향으로 호텔·음식점의 예약 취소가 있다」 등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이시카와」 는 5포인트 이상 악화로 나타났다.
- 「홋카이도」 (41.6) ...동 1.7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 및 원재료비 급등, 악천후 등으로 『제조』 및 『농·임·수산』 을 포함하는 7개 업계에서 하향하였다. 또한 전규모에서 악화되었고 특히 「소규모기업」 이 크게 침체하였다.
- 「킨키」 (43.6) ...동 1.0포인트 감소.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지역 내 6개 부현(府県) 모두에서 하락하였다.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난 『운수·창고』 등 8개 업계에서 악화되어 오사카·칸사이 엑스포의 준비에 자재 등의 조달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다수 들렸다.

지역별 그래프 (2021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0.1	40.6	41.2	42.2	43.0	43.9	45.6	44.8	43.6	43.7	43.3	43.3	41.6	▲ 1.7
토호쿠	38.0	37.2	41.1	41.2	41.6	41.7	42.1	41.8	41.5	41.4	41.3	40.3	40.2	▲ 0.1
기타칸토	40.9	41.4	42.6	43.3	43.4	42.8	43.1	43.1	42.9	43.0	42.6	43.0	40.9	▲ 2.1
미나미칸토	44.1	43.9	45.7	46.7	47.2	47.2	47.4	46.6	46.4	46.3	46.7	46.6	46.5	▲ 0.1
호쿠리쿠	40.9	41.2	42.1	42.5	44.0	43.7	43.6	43.1	42.5	42.1	42.3	42.5	40.0	▲ 2.5
토카이	41.0	41.1	42.8	43.3	44.6	43.8	44.4	44.4	43.6	44.4	45.1	44.8	44.4	▲ 0.4
킨키	42.0	41.8	43.6	44.3	45.4	43.9	43.8	43.6	43.2	43.7	44.1	44.6	43.6	▲ 1.0
추고쿠	41.9	41.8	44.1	44.8	44.9	44.7	45.3	44.3	44.1	44.9	44.2	43.9	44.3	0.4
시코쿠	39.0	38.6	40.0	40.7	43.0	41.7	42.6	41.8	41.2	41.4	41.3	42.5	42.2	▲ 0.3
큐슈	44.0	44.8	46.4	48.1	48.5	48.2	48.0	48.3	47.7	48.6	48.7	49.0	48.3	▲ 0.7
격차	6.1	7.6	6.4	7.4	6.9	6.5	5.9	6.5	6.5	7.2	7.4	8.7	8.3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